

제2018-12호(2018.03.21.)

ISSUE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동향정보 서비스

&

FOCUS on IP

INTELLECTUAL
PROPERTY

제2018-12호
(2018.03.21.)

ISSUE & FOCUS on IP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동향정보 서비스

담당자

김아린 전임연구원 arin@kiip.re.kr

김영모 전임연구원 ymkim524@kiip.re.kr

이성훈 위촉연구원 lsh17@kiip.re.kr

조남권 위촉연구원 cnkk@kiip.re.kr

IP5

미국

- 미국 CB Insight社, Walmart社의 드론을 활용한 농장 자동화 특허 출원 소개 2
- 미국 Strafford社, 변호사의 자문의견 활용방안 웹세미나 개최 예정 3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필라델피아市에서 유명 브랜드의 보석 위조품 압수 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Comcast社의 특허침해 관련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5
- 미국 무역대표부, 영국과 중소기업 무역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6

중국

-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관련 성과 및 2018년 업무건의 발표 7
- 중국 국가지식산업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성과 소개 8
- 중국 국가지식산업국, 2018년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활동계획 발표 9
- 중국 국무원, 특허법 개정 등 2018년 입법계획 발표 10
- 중국 국무원, 국가지식산업국 등 국무원 기구 개편 추진 11

일본

- 일본 변리사회, 변리사 관련 만화 '섬광의 파수꾼' 제작 배포 12
- 일본 경제신문社,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 보도 13
- 일본 특허정보기구, 2017년 특허정보 보급활동 공로자 표창 발표 14
- 일본 변리사회, '지식재산경영센터' 구조 개혁 검토 15
- 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 가이드북 2018' 발간 16

유럽

- 영국정부,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비준 17
- 영국 정부, ‘유럽 이동성 규정(EU Portability Regulation)’ 시행에 관한 발표 18
- 유럽 지식재산청, ‘위조 상품과 자유무역지구’ 보고서 발표 19
-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브렉시트’ 추가 발표(I) 20
-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브렉시트’ 추가 발표(II) 21

한국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 동향 발표 22

ISSUE & FOCUS on IP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지식재산 동향정보 서비스

IP5



미국 CB Insight社, Walmart社의 드론을 활용한 농장 자동화 특허 출원 소개

- 2018년 3월 8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CB Insight社는 Walmart社의 농장 자동화를 위한 특허 출원을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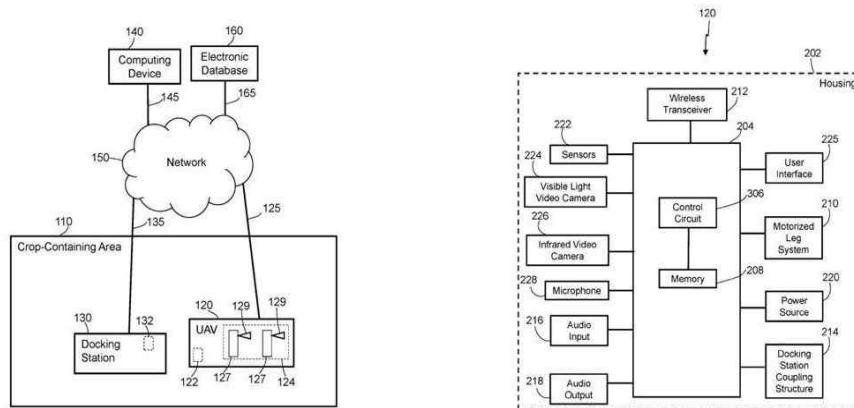
- (배경) Walmart社는 Amazon社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공급체인을 간소화하고, 온라인 식료품 쇼핑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Walmart社의 공급체인 효율화 관련 주요 특허는 다음과 같음

Walmart社의 공급체인 효율화 관련 주요 특허	
특허 공개일	주요 특허 내용
2017.5.4.	구매자의 상품 이용 빈도를 체크하여 자동주문하는 시스템
2017.8.17.	물류시스템을 갖춘 공중 물류창고
2017.11.30.	스마트홈 ¹⁾ 기술을 이용한 무인 소매점포
2017.12.28.	구매하기 전에 신선한 품목을 온라인으로 3D 렌더링 하는 시스템

- (주요내용) Walmart社는 식료품 사업과 공급체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장 자동화 특허 등을 출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특허는 ‘Machine Vision’²⁾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상하게 하는 해충이나 없애거나, 새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드론이 표적 살충제를 발사함
- 또한, Walmart社는 꿀벌 개체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드론에 센서를 적용한 ‘로봇 벌’을 개발하여 꽃가루 수분용으로 사용함



Walmart社의 드론을 통한 농장 자동화 특허 도식(출처: CB Insight社)

자료원 www.cbinsights.com, 2018.3.8.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walmart-farming-drones-patent/>

- 1) 사물인터넷(IoT)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집에서 제품을 추적하고 자동 보충을 제공하는 Walmart社의 기술.
- 2) 기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판단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사람이 인지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이 대신 처리하는 기술.

미국 Strafford社, 변호사의 자문의견 활용방안 웹세미나 개최 예정

- 2018년 3월 10일, 미국 법률전문매체인 Strafford社는 ‘특허 침해 : 변호사의 자문의견 활용방안³⁾’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Strafford社는 미국 변호사 연수 인정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관련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22일 ‘제품 개발에서 특허 침해 위험 관리(Managing Patent Infringement Risk in Product Development)’에 대한 웹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⁴⁾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Personalized Media Communications社의 Thomas J. Scott, Jr. 전무, 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로펌의 April E. Weisbruch 변호사, Carlton Fields Jordan Burt社의 Eleanor M. Yost 박사
 - (날짜) 2018년 3월 28일 오후 1:00 ~ 2:30(동부표준시)
 - (참가비) 297달러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Halo 판결⁵⁾의 내용과 특허 침해 시 변호사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 할 예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의적 침해 및 유도침해 발생 시 변호사의 의견 활용방법
 - 권리 포기 시 자문변호사, 사내변호사 의견 활용방법
 - 변호사의 의견을 활용하는 모범 사례

자료원 www.straffordpub.com, 2018.3.10.

<https://www.straffordpub.com/products/patent-infringement-structuring-opinions-of-counsel-2018-03-28>

3) Patent Infringement: Structuring Opinions of Counsel.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7472

5)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136 S.Ct. 1923 (2016): 연방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알았거나 이를 의도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고의만이 요구되며, 침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또한, 특허권자가 고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민사소송상의 일반 증거원칙에 따른 개연성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며,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완화된 고의침해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 침해 징벌적 손해 배상 판단 기준을 완화하였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필라델피아市에서 유명 브랜드의 보석 위조품 압수

- 2018년 3월 1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필라델피아市에서 약 140만 달러의 유명 브랜드의 보석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CBP는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압수와 배제 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2월 27일, CBP는 필라델피아市에서 약 23.3만 달러의 시계 위조품을 압수한바 있음⁶⁾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발송물을 수색하여 보석 위조품들을 압수함
 - 동 위조품은 홍콩에서 발송되어 필라델피아市에 소재한 화물 창고에 도착하였으며, CBP 현장요원은 단속을 실시하여 3월 6일에 압수함
 - CBP는 위조품 269점(약 140만 달러)의 압수 조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관련의견)** 필라델피아 CBP의 Edward Moriarty 소장은 CBP가 미국의 무역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조품과 부적격한 상품을 압수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합법적인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압수한 보석 사진(출처: CBP 홈페이지)

자료원 www.cbp.gov, 2018.3.13.

<https://www.cbp.gov/newsroom/local-media-release/philadelphia-cbp-seizes-14-million-shipment-counterfeit-designer>

6)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8-1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3&po_no=1751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Comcast社の 특허침해 관련 관세법 제337조 조사 착수

- 2018년 3월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다국적 미디어기업 Comcast社 등 5개 계열사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2월 8일, 미국 디지털 비디오 수신기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 Rovi社は Comcast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ITC는 Rovi社の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디지털 비디오 수신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ITC는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디지털 셋톱박스과 대화식 프로그램 가이드 소프트웨어, 원격 제어장치라고 밝힘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자료원 www.usitc.gov, 2018.3.13.

https://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8/er031311917.htm

미국 무역대표부, 영국과 중소기업 무역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 2018년 3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Liam Fox MP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중소기업 무역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 **(배경)**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영국 기업들의 무역 및 투자 실무에 대한 지속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상호이익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양측이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와 Liam Fox MP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영국의 중소기업이 각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Toolkits’⁷⁾을 발간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국 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교육 도구 및 자료를 개발함
 - 스코틀랜드 공인회계사협회(ICAS),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및 전국 회계감사원협회(NASBA) 간의 상호 승인 협약을 통하여 무역품질기준을 통일화함
 - **(관련의견)**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는 ‘Toolkits’의 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근로자의 지식재산 교육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Liam Fox MP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번 논의를 통하여 양국의 중소기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으며, ‘Toolkits’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힘
 - **(향후계획)** 미국과 영국은 3월 20일 ‘SME Dialogue’를 통하여 중소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정부 관료와 무역 및 투자유치를 심화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논의할 예정

자료원 www.ustr.gov, 2018.3.15.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march/joint-statement-uk-international-0>

7) 동 Toolkits은 미국과 영국 내 중소기업이 상대국과 거래를 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미국)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K-SME-IP-Toolkit_FINAL.pdf?MURL=IPToolkit, (영국)<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tecting-intellectual-property-in-the-united-kingdom>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관련 성과 및 2018년 업무건의 발표

- 2018년 3월 9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총장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성과와 2018년 업무건의를 발표함
 - **(업무성과)** 지난 5년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치환경을 최적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관련성과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광둥, 쓰촨, 닝샤 등 30개 지역에 권리침해 및 위조 집행 사법정보 공유플랫폼을 설립하였으며, 위조품 제조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자 12만 명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동기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임
 - 5년 연속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간 10대 사례를 발표함
 -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 심화 연구하고, 합법적인 겸직활동, 지분 배당, 과학기술 성과 전환 이익, 직권을 이용한 뇌물 수수, 공금 횡령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회의 발전활력을 보호함
 - 2014년 상해시 검찰원 제3분원, 베이징시 검찰원 제4분원을 설립한 후, 범행정구역 관할의 사건처리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함
 - 범지역 사건 및 식품·의약품, 환경자원, 지식재산권, 해양 등 특수한 유형의 사건 843건을 처리함
 - **(업무건의)** 차오젠밍 검찰총장은 검찰기관이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함
 -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각종 소유제 경제 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과학 혁신과 성과 전환 보장
 - 불법 자금모집, 온라인 다단계 판매, 내부자 거래 등 범죄를 중점적으로 처벌
 -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환경 관리, 생태계 회복을 촉진
 - 빈곤 구제 영역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적극 참여하고, 농촌의 안정을 위협하고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토지 도급, 농지 임대, 집단 재산권 개혁 등 분야에서 민사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적 감독을 강화하여 농촌 진흥전략 실시를 보장

자료원 www.spp.gov.cn, 2018.3.9.

http://www.spp.gov.cn/spp/tt/201803/t20180309_369886.shtml

중국 국가지식산업권,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성과 소개

- 2018년 3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SIPO) 셴창위(申长雨) 국장은 양회(兩會)⁸⁾ 부장통로(部長通道)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방면의 성과에 대해 소개함
 - **(배경)** 양회 부장통로는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개최되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회의 전 주요 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인터뷰 장소임
 -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커졌으며 이에 SIPO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함
 - 최근 5년간 특허 행정집행은 19만 건 이상을 기록하여 연평균 40% 증가함
 -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조사 점수는 2012년 63점에서 2017년에는 76점으로 향상됨
 -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더욱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수립함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심사, 행정집행, 사법보호, 중재조정 등 다양한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함
 -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신속한 심사·권리부여·권리보호를 실현함
 - 중국기업과 해외기업,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호하여, 우수한 혁신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 **(지식재산권 활용 성과)**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특허 활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SIPO는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함
 - 지식재산권 권익 배분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권익 배분체제를 수립하여 혁신주체의 적극성을 장려함
 - 2017년 전국의 특허 기술계약은 약 1,500건, 계약금액은 1,4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0% 증가함
 - 지식재산권 운영시스템과 운영플랫폼을 완비하여 지식재산권 이전, 구매 위탁관리, 거래, 담보융자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함
 - 2017년 특허 담보융자액은 약 72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에 관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 스마트 제조, 바이오 의약, 차세대 이동통신 등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발전을 촉진함
 - 인공지능, 환경보호 등 중점산업과 관련한 산업별 지식재산권연맹을 설립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

자료원 www.sipo.gov.cn, 2018.3.13.

<http://www.sipo.gov.cn/zscqgz/1120658.htm>

8)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며 동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 등을 논의함.

중국 국가지식산업국, 2018년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활동계획 발표

- 2018년 3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업국(SIPO)은 2018년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활동계획을 발표함
 - (개요) 지식재산권 홍보 보급을 강화하고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며 제18회 세계 지식재산의 날⁹⁾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8년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활동 조직위원회는 2018년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활동을 추진함
 - (활동기간) 2018년 4월 20일~26일
 - (활동주제) 혁신문화 제창, 지식재산권 존중
 - (주요내용) 2018년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의 중점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지역 각 기관은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19대 정신을 성실히 학습하여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실현하며, 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중대 정책결정을 따르고,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의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달성함
 -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의 발전 역사와 성과를 홍보하고,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반포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각 지역에서 달성한 지식재산권 사업성과를 홍보함
 -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행동계획 심화 실시, 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 등 정책의 시행현황을 홍보함
 -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사업에서 달성한 성과에 대해 보도하고, 시범사업 지역, 시험구(试验区), 시범구(示范区)가 지식재산권 개혁에서 취득한 보급 가능한 경험과 방법에 대해 보도함
 - 지식재산권 품질 및 활용 효과 향상을 위해 중국이 시행한 정책과 조치를 홍보하고,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강화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보도하며, 전국 각 지역 각 기관에서 법률 제정, 위조 단속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사례와 성과를 홍보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현황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국제적으로 우수한 이미지를 수립함
 - 지식재산권 법률·법규 및 기본 지식을 홍보하고, 지식재산권 입법 상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 발표한 중요 정책에 대해 홍보하며,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식 존중, 혁신 숭상, 준법 성실'을 핵심이념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문화를 전파함

자료원 www.sipo.gov.cn, 2018.3.14.

<http://www.sipo.gov.cn/gztz/1120686.htm>

9)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WIPO 설립협약의 발효일(1970년 4월 26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26을 '세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여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혁신가들을 격려함.

중국 국무원, 특허법 개정 등 2018년 입법계획 발표

- 2018년 3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특허법 개정을 포함한 2018년 입법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허법 개정초안(专利法修订草案),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개정 등을 제정함
- (1) 특허법
- 특허법제도를 완비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혁신활동을 유발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2014년 하반기부터 특허법 제4차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함
 -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허법 개정초안(송심고)(专利法修订草案(送审稿))’를 완성하여 2015년 7월에 국무원에 보고함
 - 2015년 12월, 국무원 법제판공실(法制办公室)은 동 개정초안에 대한 대증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논증함
- (2) 특허대리조례
- 현행 특허대리조례는 국무원이 1991년에 공포한 것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현실 상황과 맞지 않고 특허대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SIPO는 개정에 착수함
 - 2011년 2월~3월,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SIPO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특허대리조례는 5년 연속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됨

2018년 입법계획	
구분	세부내용
신발전이념 실현과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개정초안, 세금징수관리법 개정초안, 차량구입세법 초안, 외국투자법 초안 심의 - 정부투자조례, 기초시설 및 공공서비스영역의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조례, 사모펀드 관리에 관한 임시조례 등 제정 - 특허대리조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전국경제조사조례 등 개정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행정 의사결정 절차 임시조례, 사회조직 등기관리조례 등 제정 - 정부정보공개조례, 예산법 실시조례 제정
사회주의 문화 번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 개정초안 심의 - 전 국민 열독 촉진조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조례 제정 -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조례, 올림픽 심벌 보호조례 개정
민생 개선 및 사회치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생산법 개정초안,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초안,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초안 등 심의 - 주택판매관리조례, 주택임대조례, 소비자 권익보호법 실시조례,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조례, 안전생산법 실시조례 등 제정 - 주택기금 관리조례,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화장품 관리감독조례 등 개정

자료원 www.gov.cn, 2018.3.14.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3/14/content_5274006.htm

중국 국무원, 국가지식산업국 등 국무원 기구 개편 추진

- 2018년 3월 1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정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이 심의에 통과됨

- **(주요내용)** 국무원은 정부 역할을 발휘함에 있어서 체제 상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점 분야에 대한 정부기관의 기능을 더욱 최적화하고자 국무원 기구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동 개혁은 크게 i) 국무원 부처 조정 및 ii) 국무원 직속기구 조정으로 구분됨

(1) 국무원 부처 조정

-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자연자원부로 이양하였고, 환경보호부를 폐지하고 생태환경부를 신설하였으며, 문화부 및 국가관광국을 폐지하고 문화관광부로 통합함
-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하여 민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중앙군사위원회의 퇴역군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응급관리부를 신설하여 국무원 판공청,公安部, 국토자원부, 중국지진국 등의 재난 및 응급관리 직무를 전담하도록 함
- 이로써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을 제외한 국무원 부처는 총 25개에서 26개로 개편됨

(2) 국무원 직속기구 조정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및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직무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 감독감시 및 반독점 집행 직무,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에 관한 반독점 집행,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관련 직무를 통합하여 담당하도록 함
-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을 폐지하고 국가방송총국을 신설하여 기존의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의 업무를 포함한 당의 정책 홍보, 방송관리 정책 제정, 방송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국가지식산업국 개편)** 국무원 직속기구 중, 국가지식산업국(SIPO) 개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IPO 개편은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각각 관리되고 중복 집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SIPO의 직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 관리 직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 관리 직무를 통합하고, SIPO를 개편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도록 함
 - 개편되는 SIPO의 주요 직책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며,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원산지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행정판결, 상표 및 특허 집행 업무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상표 및 특허 집행에 관한 직무는 시장감독관리 종합 집행 부서에서 담당함

일본 변리사회, 변리사 관련 만화 ‘섬광의 파수꾼’ 제작 배포

- 2018년 2월 28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는 변리사와 변리사 업무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섬광의 파수꾼(閃きの番人)’을 3부작으로 제작하여 배포함
 - (개요) 일본 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생소한 초보자도 변리사와 변리사 업무에 대하여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주석을 달아 설명이 되어 있는 만화 ‘섬광의 파수꾼’을 제작함
 - (주요내용) 동 만화는 변리사 니시아 조지와 신임 변리사 키류 마리가 고객의 의뢰를 해결하는 지적 엔터테인먼트 만화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되며 PDF 형식으로 제공함
 - 동 만화는 픽션이며, 무단 전재·가공,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함

만화 ‘섬광의 파수꾼’ 구성	
구분	제목
제1부	변리사 니시아 조지, 공지 및 선사용권
제2부	슬픔이 낳은 어머니의 발명, 비변행위 ¹⁰⁾ 와 모인출원
제3부	상표권이 지킨 꿈과 인연,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만화 ‘섬광의 파수꾼’ 표지

자료원 www.jpaa.or.jp, 2018.2.28.

<https://www.jpaa.or.jp/comic/>

10) ‘비변행위(非弁行為)’는 변호사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합의 등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변호사법으로 금하고 있음

일본 경제신문社,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 보도

- 2018년 3월 1일, 일본 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社は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하여 2017년 6월 ~ 2018년 2월 기간 동안 186개의 일본 기업 내부 문서가 게재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보도함

- **(개요)** IT 관련 회사 크로스윙프社가 중국의 인터넷기업 바이두社가 운영하는 문서 공유 사이트 '바이두 문고'를 조사한 결과, 2017년 6월 ~ 2018년 2월에만 비밀을 의미하는 주의 사항이 적힌 186개의 문서가 게재되어 있었음
 - 바이두 문고에서 일본 기업의 자료 유출은 2013년에도 문제화되어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삭제 요청 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표한 적이 있음
- **(주요내용)**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문서 공유 사이트에서 일본 기업의 내부 문서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내용

- 문서가 게재된 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하였으며, 제품 설계 도면과 내부 교육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 기능 설명 자료, 음식점 체인의接客 매뉴얼 등이 게재되어 있음
- 크로스윙프社는 중국의 문서 공유 사이트는 문서를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다운로드 수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중국 현지 법인에 배부된 교육 자료 등을 중국인 직원이 돈을 벌기 위해 게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2) 조치내용

- 대형 사무기기 회사의 중국어로 된 제품 비교 자료가 게재되어 일본 경제신문社의 지적으로 삭제되었으며, 회사 관계자는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지만 사외비 문서 유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두社에 이에 대해 취재하자, 자료 게시자에게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그에 대한 승낙을 받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이 있으면 문서를 신속히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전검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 **(관련의견)** 중국법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영업비밀 반출은 불법이지만, 형사처분이 적용되는 것은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하고,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가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는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분이 어렵다고 밝힘
 - 따라서 내부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현지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밀 보호의식을 높이는 사내 세미나 개최 등 사전 대책 및 유출 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한다고 밝힘

일본 특허정보기구, 2017년 특허정보 보급활동 공로자 표창 발표

- 2018년 3월 1일, 일본 특허정보기구(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JAPIO)는 2017년 특허정보 보급활동 공로자 표창을 발표함

- (개요) 특허정보 보급활동 공로자 표창은 2011년 7월에 해산한 간사이 특허정보센터진흥회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목적) 특허정보의 보급, 활용, 연구, 인재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적을 표창함으로써 특허정보 보급활동 종사자들의 의식 함양, 특허정보의 새로운 보급과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주최 및 후원) JAPIO에서 주최, 일본 특허청(JPO) 후원
- (수상내역) JPO 특허청장상, JAPIO 이사장상
- (시상식) 2018년 3월 12일 개최

- (주요내용) 동 표창의 요건과 수상자는 다음과 같음

(1) 표창요건

- (특허정보 활용보급공로자) 특허정보의 보급·활용을 통해 특허정보에 관련된 업계에서 선도적인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 (특허정보 활용연구공로자) 이용자의 입장에서 특허정보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고 그 보급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 (특허정보 기술연구공로자) 기술적 측면에서 특허정보의 이·활용에 도움이 되는 검색 기술·정보 등의 연구 개발을 한 개인 또는 기관
- (특허정보 인재육성공로자) 특허정보 활용 인력 양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 (특허청장상 특별요건) 표창 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15년 이상 산업재산권 제도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있어야 하며 단체인 경우 설립 후 20년 이상, 과거 수상 경력이 있으면 10년 이상 경과해야 수상이 가능함

(2) 수상자

2017년 특허정보 보급활동 공로자 표창 수상자	
구분	수상자
JPO 특허청장상	(활용보급공로자) 사카이 미사토(스마트웍스社 대표이사)
JAPIO 이사장상	(기술연구공로자) INFOSONAR社
	(활용연구공로자) 오오모토 유우지(前 히타치기술정보서비스/히타치제작소)
	(인재육성공로자) 시게타 아키히코(일본특허데이터서비스社 고문)
	(활용보급공로자) 호리코시 세츠코(일본전기특허기술정보센터社 IP컨설팅서비스사업부 주임)

일본 변리사회, '지식재산경영센터' 구조 개혁 검토

- 2018년 3월 2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가 '지식재산경영센터'의 체제를 정비하고 대폭적인 구조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의 종합 경제 정보 사이트 SankeiBiz社가 보도함
 - (개요) 일본 변리사회는 2017년 4월에 지식재산경영의 관점에서 변리사회의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 조정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지원, 변리사의 경영지원 교육, 변리사가 담당할 수 있는 신규 업무범위 확장 연구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경영센터'를 설립함¹¹⁾
 - (센터 조직) 조직은 센터장 아래에 총 5개의 본부(통합 사업본부, 지식재산가치평가 사업본부,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업본부, 지식자산활용 사업본부, 지식재산캐러밴 사업본부)로 구성됨
 - (센터 규모) 숙련된 변리사가 각 사업 본부장에 배치되었으며 센터장 포함 총 173명 규모로 운영됨
 - (배경) 일본 변리사회는 소속 변리사들의 연 회비 미납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경영센터'의 구조 개혁을 검토함
 - 시험 제도 개혁 등으로 변리사의 수는 증가했지만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의 정체, 비용 삭감 요구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중소 특허 사무소가 늘어 일본 변리사회의 연 회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가을에 새로운 변리사회 회장이 선출되고, 이에 따라 새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2017년 말부터 각 사업본부 간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재검토하여 수행하고 있었음
 - (주요내용) '지식재산경영센터'의 총 5개의 본부를 3개 본부 구조로 개편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가치평가 사업본부는 유지함
 - 통합 사업본부와 지식자산활용 사업본부를 통합하여 '기획통합 사업본부'를 신설함
 -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사업본부와 지식재산캐러밴¹²⁾ 사업본부를 통합하여 '기업지원 사업본부'를 신설함
 - 관계자는 총 3개 본부 구조로, 인원을 120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동 센터 변리사들의 출석률과 변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함

자료원 www.sankeibiz.jp, 2018.3.2.

<https://www.sankeibiz.jp/compliance/news/180302/cpd1803020500004-n1.htm>

1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89&po_no=16655

12) '변리사 지식재산 캐러밴'은 일본 변리사가 해외로 나가서 해외 기업에게 일본의 특허제도와 지식재산제도를 알리고, 이를 통해 해외 기업이 일본 국내에 특허출원을 보다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 가이드북 2018’ 발간

- 2018년 3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단체상표 가이드북 2018(地域団体商標ガイドブック2018)’¹³⁾을 발간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지역단체상표 제도’는 지역 브랜드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신용도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4월부터 도입됨

- JPO는 지역단체상표 제도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에 관한 해설과 구체적인 활용 사례,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를 소개하는 ‘지역단체상표 사례집’을 2008년부터 발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단체상표 개요, 실제 취득·활용 사례, JPO 지원책 등을 단권으로 정리한 동 가이드북을 발간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가이드북은 지역단체상표 제도의 개요, 권리자의 협력으로 수집된 활용 사례, 제도에 대한 JPO의 지원책과 함께 2018년 1월 말까지 등록된 지역단체상표의 사진과 권리자명을 게재하고 있음
- 동 가이드북은 지역단체상표 취득 또는 검토 중인 단체, 지방 행정의 담당자를 포함한 지역 브랜드 진흥에 힘쓰고 있는 모든 주체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추후에 지역단체상표의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함

(2) 활용사례

‘지역단체상표 가이드북 2018’ 키워드별 활용사례		
키워드	지역단체상표	내용
홋카이도 브랜드	홋카이도 도카치 송아지	도카치 지명이 들어간 상표권 취득으로 상품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하여 단가 인상, 거래처 증가가 된 사례 소개
타지역 PR	이시카와현 노토덮밥	지역단체상표 취득에 의해 지역이 일체단결하여 적극적으로 타 지역에 PR을 하여 새로운 명물로 확립된 사례 소개
인재육성 자사 브랜드	효고현 도요오카 가방	지역단체상표 취득을 계기로 지역이 일체가 되어 인재 육성에 힘쓰고, 후계자 육성에 성공한 사례 소개
품질관리·해외	에히메현 이마바리 타올	철저한 품질 관리와 브랜드화의 노력으로 제품 단가가 50% 증가하였고, 해외 진출에도 성공한 사례 소개
6차 산업화 ¹⁴⁾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굴	지역단체상표로 확립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현의 지명도와 가공품 판매를 신장시킨 사례 소개
지리적표시·해외	홋카이도 도카치 카와니시 참마	지역단체상표와 농림수산물 등의 지리적표시 보호 제도를 잘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사례 소개

자료원 www.jpo.go.jp, 2018.3.7.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iikibrand.htm

13) 동 가이드북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files/tiikibrand/all.pdf

14) ‘6차 산업화’는 1차 산업의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함.

영국 정부,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비준

- 2018년 3월 13일, 영국 정부는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가입에 있어 최종 필수단계인 비준서 기탁을 완료함
 - (개요)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영국이 가입에 있어 최종 단계를 완료함
 - 2018년 3월 13일, 영국은 동 협정에 관련한 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에 기탁하였으며, 기탁에 관한 효력은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효됨
 - (주요내용) 동 협정을 통하여 영국 내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으며 기타 긍정적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음
 - 산업디자인을 위한 헤이그 협정은 디자인 관련 법률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한 광의의 디자인 현대화 프로그램의 부분이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수단에 있어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지니게 됨
 - 또한 동 협정을 통해 i) 디자인 등록에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지니게 되고, ii) 지식재산보호에 있어 보다 높은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으며, iii) 영국인이 아닌 디자인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디자인을 영국에 등록하는 것을 장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헤이그 협정에 따르면 출원인은 1회의 출원을 통해 총 67개의 헤이그 협정 회원국 중 하나의 국가에 자신의 디자인이 등록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¹⁵⁾
 - (기타내용) 헤이그 협정은 특허의 특허협력조약(PCT), 상표의 마드리드 협정에 준하는 국제 산업디자인에 관하는 국제조약임
 - 2014년 3월 31일에 한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함

자료원 www.gov.uk, 2018.3.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ratifies-hague-agreement-for-industrial-designs>

15) PCT의 경우 총 82개국이 회원국임.

영국 정부, '유럽 이동성 규정(EU Portability Regulation)' 시행에 관한 발표

- 2018년 3월 15일, 영국 정부는 '유럽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정(이하, 유럽 이동성 규정)'이 영국 내에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효일을 기준으로 영국 내 모든 관련 기업들은 규정에서 명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
 - **(개요)** 2018년 1월 3일, 유럽 이동성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영국지식재산청(UKIPO)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동 공청회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지속되었음
 - 동 공청회에선 유럽 이동성 규정의 시행에 관련하여 관련 업계의 준비 현황, 담당 기관 및 부처,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질문들과 특히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 이동성 규정 적용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음
 -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이슈 12개에 관하여 영국 정부는 답변서를 게재하였음¹⁶⁾
 - 2018년 2월 28일, 유럽 이동성 규정 관련 영국 국내법을 완비함
 - **(주요내용)** 유럽 이동성 규정은 하나의 EU 회원국에서 온라인 콘텐츠(영화, TV, 음악 스트리밍, 게임 등)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2018년 4월 1일부터 가입자가 다른 EU 회원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할 경우(연휴 등) 해당 지역에서도 구매한 유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함
 - 무료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가 지지는 않음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후에도 유럽 이동성 규정을 통한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EU와 상호 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관련 영국 국내법 개정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향후계획)** UKIPO는 12개 질의에 관한 답변서를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밝힘
 - UKIPO는 동 규정에 따라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시일내에 제공할 예정임

자료원 www.gov.uk, 2018.3.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implementation-of-the-portability-regulation>

16)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90128/DPS-007149-Cross-border-portability-of-online-content-services-response.pdf

유럽 지식재산청, '위조 상품과 자유무역지구' 보고서 발표

- 2018년 3월 1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OECD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들과 이러한 사례들이 끼친 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한 후 이러한 침해들이 국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위조 상품과 자유무역지구' 보고서¹⁷⁾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유형의 상품들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무역의 가치와 범위 그리고 동향에 관하여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임
 - 동 보고서는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시리즈로 구성되는 보고서임
 - 동 보고서는 저작권, 상표, 디자인, 특허의 침해를 그 대상으로 하였지만, on-line piracy와 같은 무형의 상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부분은 보고서 범위에서 제외함
 - 자유무역지구의 지정은 지정국에게 커다란 이익을 제공하는 반면, 자유무역지구 관련 법규정 및 제재가 느슨함을 이유로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위조 상품의 거래(무역)가 활성화 되는 경향도 있음
 - 동 보고서는 국가 경제에 있어 자유무역지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위조 상품의 수출 경제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함
 - 동 보고서에는 130개 이상의 국가에 지정된 자유무역지구의 성향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EUIPO와 OECD가 보유하고 있는 위조 상품 수출에 관한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내용을 담겨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유무역지구는 130개국 이상이 지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3,500개 이상이 형성되어 있음
 - 위조 상품에 관한 무역량은 전 세계 상품 무역액의 2.5%로 이는 3.380억 유로에 해당하며, 자유무역지구 추가 지정으로 인해 위조 상품 수출액이 최대 5.9% 증가됨
 - 자유무역지구로부터의 수출액 1%의 증가로 인해 위조 상품 수입액이 최대 0.28% 증가되고, 자유무역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 1%의 증가로 인해 위조 상품 수출액이 최대 0.29% 증가됨
 - 자유무역지구의 근로자의 수 1%의 증가로 인해 위조 상품 수출액이 최대 0.21% 증가되며, 자유무역지구에 관한 투자액 1%의 증가로 인해 위조 상품 수출액이 최대 0.17% 증가됨
 - 자유무역지구의 근로자 수는 6,600만여 명이며 추가액 관련 직접 무역을 통하여 5,000억 달러 상당액을 창출함

자료원 euipo.europa.eu, 2018.3.15.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web/observatory/trade-in-counterfeit-goods-and-free-trade-zones>

17)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Trade_in_Counterfeit_Goods_and_Free_Trade_Zones/Trade_in_Counterfeit_Goods_and_Free_Trade_Zones_en.pdf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브렉시트’ 추가 발표(I)

- 2018년 3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지식재산과 브렉시트(IP and Brexit)’를 발표함¹⁸⁾
 - (개요) 동 주제에 관한 발표는 2016년 8월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4일 제1차 추가 발표가 있었으며 이번은 제2차 추가 발표임
 - (배경) UKIPO는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영국 지식재산체제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8월 영국 내 기업 및 권리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함¹⁹⁾
 - UKIPO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EU의 범주 내에 잔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정부적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UKIPO는 그 후 발생한 영국 정부의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비준 의사 표명, 영국 Theresa May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²⁰⁾ 선언, 영국의 EU 탈퇴 절차 개시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추가하여 브렉시트 관련 보도자료를 수정·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 유럽특허조약(EPC)에 의한 유럽 특허제도는 EU와 무관하므로 영국의 EU 탈퇴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국 기업은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영국 및 EPO 회원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영국 기업은 앞으로도 EPO에 출원 할 수 있으며, EPO에 출원하여 등록된 영국 기업의 특허도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특허변호사는 EPO에서 출원인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

(2)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

- 현재 추가보호증명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약 부분과 식물 보호 부분에 관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기업은 추가보호증명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추가보호증명 시스템에 의해 갱신된 특허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함
- 현재 영국 정부는 추가보호증명 보호 시스템의 혜택에서 영국이 누락되지 않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 중에 있음

자료원 www.gov.uk, 2018.3.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ip-and-brexit-the-facts>

18)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8-12호에서는 영국 지식재산청이 추가 발표한 ‘지식재산과 브렉시트’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

19)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897

20) 하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탈퇴함으로써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및 관세동맹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함. 2017년 1월 18일,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언하고, 자유(독립주권)와 이민제한 도입 및 기타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적극 체결해 나갈 것이며, 특히 EU와의 새로운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브렉시트’ 추가 발표(II)

- 2018년 3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지식재산과 브렉시트(IP and Brexit)’를 발표함²¹⁾

- (주요내용) 동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 디자인

- 영국에 등록된 디자인과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모두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현재와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됨
- 등록된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내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됨
-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경우 영국이 EU의 회원국인 동안은 지속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며, 보호 기간은 3년임
-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공동체 디자인에 출원할 수 있음
- 영국은 헤이그 협정 가입국으로서 이를 통해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함

(4) 상표

- 영국의 EU 탈퇴 계획이 현재 영국 상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유럽연합상표(EUTM)는 영국 내에서 유효하며, EU 탈퇴 후에는 영국 외 EU 회원국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또 EUTM 등록 신청도 가능함
- 영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국제상표출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한 번의 출원 및 등록으로 113개국에서 보호를 받게 됨

(5) 지식재산 집행

- 영국은 지식재산 집행에 있어 세계적 선두주자로 인식되어온 만큼 행정기관과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 경찰(Europol) 등의 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힘쓸 것임

자료원 www.gov.uk, 2018.3.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ip-and-brex-it-the-facts>

21) 본 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8-12호에서는 영국 지식재산청이 추가 발표한 ‘지식재산과 브렉시트’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함.

특허청,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 동향 발표

- 2018년 3월 15일,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에 관한 동향에 관하여 발표함
 - (개요)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추세임
 - 2015년 77건에 머물던 AI 반도체에 관한 특허 출원이 2017년에 이르러 391건으로 증가함
 - 특히,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와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²²⁾ 특허 출원 증가가 두드러짐
 -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기계학습용 알고리즘 구동에 고성능고용량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사람의 뇌신경을 모방한 차세대 AI 반도체 구조로서 최근 업계의 높은 관심과 활발한 연구 활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해석됨
 - (주요내용) AI 반도체에 관한 특허 출원 증가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적별) 출원인의 국적별 순위는 우리나라가 590건(71.3%), 미국 182건(22.0%), 일본 17건(2.1%), 프랑스 9건(1.1%) 등임
 - (출원기업별) 출원인 순위는 삼성전자 199건(24.0%), 쉐일컴 59건(7.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36건(4.3%), 한국과학기술원(KAIST) 23건(2.8%) 등임
 - (반도체 종류별) 최근 15년(2003~2017)간 AI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 출원된 828건 중에서 ‘AI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특허 출원이 650건으로 79%를 차지했으며 ‘AI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특허 출원은 178건으로 21%를 차지함
 - (세부 기술별) ‘AI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구글社 알파고(AlphaGO)의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기계학습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허 출원이 348건(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관련의견) 특허청은 차세대 AI 프로세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뉴로모픽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허 출원은 58건(7%)으로 비중은 작았지만 최근 3년 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유망 기술로 분석된다고 밝힘
 - 특허청 제승호 반도체심사과 과장은 “AI 반도체는 고성능 프로세서와 고속광대역 메모리가 결합할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 분야이다.”고 언급함
 - 이와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더불어 다양한 AI 기능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2) 하드웨어적으로 사람의 뇌신경을 모방한 차세대 AI 반도체 구조.